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7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23일 (음력 9월 4일) 월요일

‘국민-바른 통합설’에 광주·전남 정가 술렁



보수 야당 통합론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잔류파와의 통합론에 군불을 지피면서 국민의당의 존립 기반인 광주·전남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관련기사 10편)

혁신을 통한 전국 정당화와 체력키우기의 주춧돌을 놓을 기회라는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는 “무리한 동진정책으로 집토끼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망하면서도 내년 지방을 앞두고 ‘선택의 카드’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바른정당에서는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뉘우기도 나오고 있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보수통합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 자강파

의 중도통합론이 본격 제기되면서 양당 간 연대를 넘어선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양당이 합칠 경우 정당 지지율이 20%까지 오르며 한국당을 제치고 민주당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여론조사(한국리서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3.6%,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지 참조)가 공개되고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등 수면 위와 물밑 행보 모두 활발하다.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30명이 찬성하고 10명이 탈당할 수 있다는 30대 10 분열론과 동교동계 등 호남 중진들과의 결별설까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유승민 등 양당 최대주주 주변에서는 통합의 전제조건까지 거침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전국정당화 주춧돌 vs 집토끼도 놓칠라” 바른정당 “일손 안 잡혀” 민주당 “선택카드↑” 기대

중앙당 차원에서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정가는 크게 들쭉거리며 요동칠 기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 사이에서는 “벤붕”이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한 광주시의회는 “정책연대 등 낮은 수준의 연대가 아닌 ‘당 대당’ 통합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지방의 의견이 무시된 채 중앙당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 안타깝다”며 “전국 정당화를 위한 동진정책은 좋지만 무리한 일방통행으로는 그나마 얼마되지 않은 집토끼, 밀천마저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또 다른 시의원은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호남에 대한 확실한 기반답기에 앞서 무리하게 외연을 넓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한 입지자는 “혁신을 위한 예견된 산불이고 확고한 3당 체제를 위한 큰 그림이라는데 동의하지만,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 여당과의 연정과 협치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 돌연 바른정당과의 통합 카드가 제시돼 당혹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 중 하나인 대북 햇볕정책보다는 대북강경 노선을 중시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카드에 대한 반감 또한 적잖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는 ‘바른정당은 아주 다른 색깔’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면 이에 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양적, 질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당 대표가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당직자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시당의 한 당직자는 “일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로 당혹감을 대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광망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모든 게 조심스럽고 민감해서 상황 변화를 지켜볼 따름”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택의 폭이 커질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당의 한 당직자는 “민주당, 국민의당 중간지대에서 고민하는 아들에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론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적잖은 이들이 민주당으로 쏠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재영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바른정당에서 11석 이상을 영입해 원내 1당이 되고 차기 국회의장직을 차지할 경우 여당인 민주당으로 선 위기일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의당 비안(非安·비안철수) 진영이 탈당 후 민주당과 모종의 정치적 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최남규 기자

Photo 漫評

지승자박

‘주름 잡자! 짝! 한 번 더!’
‘주름 잡자! 짝!’

서울 강남의 조용한 최고급 주택가에 ‘취가 나타났다’.

주름(MB)잡자 특공대 10여 명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시위를 마친 뒤 외치는 구호다.

이명박(MB)정권에서 일어난 각종 추태가 연이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주름(MB)잡자 특공대를 조직하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름(MB)잡자 특공대는 지난 10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MB 구속을 촉구하며 본격적으로 1인 시위를 펼쳐기 시작했다. 주름 잡자 특공대는 자영업자나 직장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단체가 특공을 통해 모여 특공대를 조직하게 됐다. 관련 인사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스시스



‘소록도 천사 할머니’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진 속도

전남도, 연내 추진위 발족...내년 1월 추천 예정

전남도가 고흥 소록도에서 43년간 한센인들을 위해 무보수 자원봉사로 헌신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가칭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를 연내 발족하고 2018년 1월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후보 추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고흥군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신부 김연준)과 공동 TF

팀을 꾸리고 추천위원회 구성과 범국민 홍보활동, 서명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추천위원회는 김항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행정, 정계, 학계, 종교계, 법조계, 전문가, 기업, 해외교포, 복지의료봉사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각층 대표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동 TF팀에서는 그 동안 노벨평화상 추천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헌신적 삶을 담은 다큐멘

터리 영화를 제작해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학교, 단체, 성당 등 40여 기관단체에서 상영하면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전남도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기간 동안에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홍보관’을 운영, 범국민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기종 부지사는 “아직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에 대해 모르는 분이 많다”며 “국내외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통해 두 분의 봉사과 이타적 삶을 널리 알려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벨평화상은 매년 1월 말까지 세계 각국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초 수상자를 발표한다.

김경환 기자



2017 화순

국화향연

10.27-11.12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

